

8장. 정치체제

설득하고 잘 조언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모든 일 둘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모든 정치체제들을 파악하고 각 정치체제의 관습들, 법제들, 이점(利點)들을 구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로운 것에 의해 설득되고, [25] 정치체제를 보존하는 것은 이롭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권자의 언명은 권위 있고, 주권자는 정치체제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정치체제의 종류만큼 또한 주권자의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제는 [흔히 인정된 것으로] 넷, 즉 민주정, 과두정, 귀족정, 일인정이 있다. 그래서 [최고] 주권자이자 [최종] 결정자는 [30] 그것들 중 일부이거나 그것들 전체일 것이다.

민주정은 추천에 의해 여러 공직을 분배하는 정치체제이고, 과두정은 과세재산을 토대로 그렇게 하는 정치체제이고, 귀족정은 교육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하는 정치체제이다. 여기서 ‘교육’은 법[관습]에 의해 규정된 교육을 [35]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제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귀족정에서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래서 또한 귀족정은 그 이름을 1366a 얻었다. 그리고 일인정은 그 이름에 | 걸맞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정치체제이다. 일인정들 중에서도 일정한 편제(編制)에 따른 것은 군주정이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참주정이다.

그러니 [조언연설을 하는 사람은] 각 정치체제의 목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적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의 목적은 자유이고, [5] 과두정의 목적은 부이고, 귀족정의 목적은 교육에 관련된 것들과 법제들이고, 참주정의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민의] 선택이 이런 목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정치체제의 목적에 관련된 관습들, 법제들, 이점들을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설득은 증명적인 연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10] 성격을 드러내는 연설을 통해서 일어나므로(왜냐하면 우리는 연설자가 일정한 성질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좋은 사람이나 호의적인 사람, 또는 둘 다인 것으로 보일 때 그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체제들 각각의 성격[특징]들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치체제의 성격이 각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격들은 [개인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될 것이다. 왜냐하면 [15] 성격들은 선택에 따라 분명해지고, 선택은 목적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조언을 할 때 미래의 것들이나 현재의 것들로서 어떤 것들을 욕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토포스]들로부터 이로운 것에 관한 설득수단들을 얻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정치체제들에 관한 성격들과 법제들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20] 어떻게 풍부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것인지가 — 지금 상황에 적합한 한에서 — 논의되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정치학》에서 했기 때문이다.

9장. 전시연설

그 다음으로, 덕과 악덕과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하여 말해 보자. 왜냐하면 이것들은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에게 목표들이기 때문이다. [25] 이와 더불어 정말,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격 면에서 — 이것은 두 번째 설득요소이었다 —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줄 점[토포스]들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점들로부터 우리는 덕에 관련하여 우리 자신이라든가 남을 신뢰할 만한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함이 없게도[장난으로도] 진지하게도 사람이나 [30] 신뿐만 아니라 혼이 없는 것들과 [사람 이외의] 아무 동물을 찬양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므로, [찬양대상과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보기만큼으로만 말해보자.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거나, 또는 좋기에 그런 한에서 즐거운 것이다. [35]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덕도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덕은 좋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덕은 좋은 것들을 [자신과 남을 위해] 마련하고 이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자, 많고 큰 선행들을 — 그것도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모든 선행들을 — 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으로 | 생각된다. 그리고 덕의 부분들은 정의, 용기, 절제, 통이 큼, 도량, 인색하지 않음, [온화,] 현명, 지혜이다.

그러나 덕은 선행의 능력이므로, 최대의 덕들은 남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 [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존경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전쟁 시에, 용기는 전쟁과 평화 시에 남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함이다. 왜냐하면 후한 사람들은 서슴없이 베풀고, 남들이 많이 얻고자 꾀하는 돈[금전]을 두고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는 그것을 통해 [이성의] 법이 명한 대로 각자가 [10] 각자의 것을 갖는 덕이다. 불의는 그것을 통해 법이 명하는 것과 달리 타인의 것들을 갖는 악덕이다. 용기는 그것을 통해 위험한 상황들에서 법이 명하는 대로 법에 복종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덕이다. 비겁은 그 반대다. 절제는 그것을 통해 신체의 즐거움들에 법이 명하는 대로 [15] 대하는 덕이다. 방종은 그 반대다. 후함은 돈과 관련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덕이다. 인색은 그 반대다. 그릇이 큼[도량]은 큰 선행들을 해낼 수 있는 덕이다. [그릇이 작음은 그 반대다.] 통이 큼은 지출에서 뭔가 큰 것들을 산출할 수 있는 덕이다. 그릇이 작음과 통이 작음은 앞의 것들에 [20] 반대되는 것들이다. 현명은 그것에 의거해, 언급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도록 잘 조언할 수 있는 지성의 덕[탁월성]이다.

그런데, 덕과 악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부분들에 관하여 지금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논의되었고, 다른 것들에 관하여 [25]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분명히, 덕을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름답고(그것들은 덕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덕의 표시들 및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 표시들, 그리고 좋은 사람의 작품[행위]들이거나 그가 겪은 것들은 아름다우므로, 용기의 작품들이나 용기의 표시들이거나 [30] 용감하게 실천된 것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것들과 정의롭게 이루어진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그러나 정의롭게 겪은 것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덕들 중 이것에서만 유일하게 ‘정의롭게’가 항상 아름답지는 않고, 처벌받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처벌 받음이 부당하게 처벌 받음보다 더 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덕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보답으로 명예가 주어지는 [35] 것들이 아름답다. 특히, 보답으로 금전보다 명예가 주어지는 것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바람직한 일들 중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것[이익]을 소홀히 하고 조국을 위해 했던, 단적으로 좋은 것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본성상
1367a 좋고, 특정인에게만 좋은 것은 | 아닌 것들이 [아름답다]. 그러한[특정인에게만 좋은] 것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 자보다는 죽은 자에게 더 있을 수 있는 것들이[아름답다]. 산 자에게 있는 것들은 자신을 위하는 특징이 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 한 일들이 [아름답다]. 덜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관련해서 [5] 잘 함들이 [아름답다]. 특히 [자신에게] 잘 해준 사람들에 관련해서 잘 함들이. 이래야 옳으니까. 그리고 선행들이 [아름답다]. 그것들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행위]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고, 의도할 때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삽포도, 알카이오스가 [10] “뭔가 말하고 싶지만, 수치심이 저를 막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었다.

그대가 고귀한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열망한다면,
그리고 그대의 혀가 나쁜 것을 일게 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수치심은 그대 두 눈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는 옳은 것들에 대해 말할 것이요. [15]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얻기 위해 분투하는 것들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성으로 이끄는 좋은 것들에 관련하여 그것을 견뎌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성상 더 뛰어난 사람들의 덕들과 일들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것들이 여자의 것들보다 [더 아름답다]. 그리고 남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아름답다]. [20]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것과 정의도 아름답다. 그리고 적들에게 복수하고, 화해하지 않음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양값음은 정당하고, 정당한 것은 아름답고, 굴복하지 않음은 용감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리와 명예도 아름다운 것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득이 없더라도 바람직하고, 덕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25] 기억할 만한 것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더 기억할 만한 것들이 더 [아름답다]. 그리고 살아 있지 않은 사람에게 따르는 것들이, 명예가 수반되는 것들이, 비범한 것들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더 잘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득이 없는 소유물들이 [아름답다]. 더 자유인에 어울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민족에게 고유한 아름다운 것들이, 각 민족에서 찬양되는 것들의 [30] 표시인 것들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 라케다이몬[스파르타]에서 긴 머리가 아름답다. 자유인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긴 머리인 사람은 품팔이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수공적인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남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자유인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이라든가 비난을 위해서, 실제의 것[성질]들에 근접한 것들을

그것들과 [35] 같은 것들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난하는 경우] 조심성 있는 사람은 냉정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고, [칭찬하는 경우] 단순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고, 무감한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칭찬하는 경우] 동반하는 용어들로부터 나오는 각각의 것[성질]을 항상 가장 좋은[우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을 잘 내는 사람과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 고결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상태들에 있는 사람들은 덕의 상태들에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무모한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낭비가 심한 사람은 후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그것은 [행위의] 원인을 잘못 추리하는 것일 테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불필요한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는다면, [5] 그것[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 사람들에게나 아낌없이 준다면,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해준다는 것은 덕의 과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칭찬이 이루어지는지도 헤아려야 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말했듯이, 아테네인들 앞에서 아테네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청중]에서, 예를 들어 스키타이인들이나 [10] 라코니아[스파르타]인들이나 철학자들에서 실로 명예로운 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예로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것들은 인접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합한 것에 따른 것들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 선조들이나 과거의 성취들에 어울리는 것들의 경우처럼. 왜냐하면 명예를 추가로 획득한다는 것도 행복을 일으키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합한 것에 어긋나면서도 [15] 더 좋은 것과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는 경우도 [아름답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행운의 때에는 절제하지만 역경에는 도량 있거나, 더 크게 되면서 더 좋고 더 화해적으로 되는 경우. 이피크라테스의 말 “어떠한 것들로부터 [나서] 어떠한 것들로 [되었는가]”가 그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올림피아경기 승리자의 다음과 같은 말도 그렇고,

나는 전에는 양 어깨에 거친 [통지계를] 지고

[20] 시모니데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그렇다.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들[과 아들들]이 참주였지만

그리고 칭찬은 행위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뛰어난 사람의 특징은 신중한 선택에 따른 행위이므로, [칭찬하는 사람인] 칭찬받는 사람이 신중한 선택에 따라 행위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용하다. [25]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 일들과 운이 좋아 일어난 일들도 신중한 선택에서 이루어진 일들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제시되면, 덕과 신중한 선택의 표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칭찬은 덕의 크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연설이다. 그러므로 [연설자는] 행위들이 그러한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면, 찬양은 업적들과 관련되어 [30] 있다(좋은 태생과 교육 같은 부대적인 요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설득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부모]로부터 좋은 사람들[자식]이 나오고, 교육받은 대로 성격을 가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실천한 사람들을 찬양하기도 한다. 그리고 업적들은 마음상태[습성]의 표시들이다. 우리는 어떤 일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가 그럴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찬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함과 [35] [그가] 행복하다고 말함은 서로 같지만, 그것들은 [그를] 칭찬함과 [그를] 찬양함과는 같지 않다. 행복이 덕을 포함하듯,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함은 [그를] 칭찬함과 찬양함을 포함한다.]

칭찬과 조언들은 공통된 종(種)[측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조언할 때 네가
1368a 제시할 법한 것들의 표현 방식을 | 변경함으로써 찬양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들을 [조언으로서] 제안하며 말할 때에는 표현 방식을 변경하고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자력으로 이룬 것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5] 이렇게 말한 것은 조언의 힘을 갖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면 칭찬의 힘을 갖는다. “그는 운 때문에 얻은 것들이 아니라 자력으로 이룬 것들에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듯, 네가 칭찬하고자 할 때면, 네가 무엇을 [조언으로서] 제안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라. 네가 제안하고자 할 때면, 네가 무엇을 칭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라. 그리고 금지하는 것[‘하지 말라’는 제안]이나 금지하지 않는 것[‘하라’는 제안]이 변경될 때, [그로부터 나오는] 표현 방식은 [이전의 제안에] 필연적으로 [모순-]대립된 형태일 것이다.

[10] [전시연설에서는] 부각[시키]는 수단들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자기 혼자만 또는 최초로 또는 몇 사람과 더불어서 또는 특별나게 행한 경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과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부각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적합한 것[기대]에 어긋나게 행한 경우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일을 자주 성공적으로 해낸 경우에. 왜냐하면 그것은 위대하거나, 우연히 [15] 행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행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려방안이나 명예부여가 그 사람 때문에 창안되고 정립되는 경우, 즉 그를 위해, 예를 들어 히폴로코스를 위해 처음으로 찬양이 이루어지거나,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키톤을 위해 시장에 동상이 세워진 경우처럼. 반대되는[비난의] 경우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만일 네가 해당 인물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면, [20] 이소크라테스가 재판연설에 경험 없이 그렇게 하곤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인물] 유명인들과 비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인물] 뛰어난 사람들보다 낫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각될 수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부각시킴이 칭찬의 형태[범주]들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부각은 우월에서 성립하고, 우월은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과는 아니더라도 [25]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야 한다. 적어도 [그들에 대한] 우월은 덕을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장르의] 연설들에 공통된 종(種)[요소]들에서 부각은 전시연설들에서 [그 목적에] 가장 알맞다(왜냐하면 승인된 행위들을 거론하고, 그래서 남은 일은 그 행위들에 크기[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보기들은 [30] 조언연설들에 알맞다(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일어난 일들로부터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며 판단하기 때문이다). 엔티메마[생략삼단논법]들은 재판연설들에 알맞다(왜냐하면 불분명하게 일어난 일이 가장 많이 심리(審理)와 증명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어떤 것[토포스]들로부터 거의 모든 칭찬들과 비방들이 말해져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것들에 주목하며 [35] 칭찬하고 비난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로부터 찬양들과 독설들이 나오는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비방은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